

문화축제 즐기고 클래식 향연에 빠지다

2018 문화계 결산 <2> 공연

시립오페라단 창단 첫 '아이다' 무대
시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관객 만남
클래식 별들 잇단 방문 즐거움 선사
해외팀 참가 대규모 연극행사 주목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로 문화성찬을 즐겼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아이다' 공연(위)과 광주시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채로운 무대를 올리며 '문화성찬'을 차렸다. 창단 첫돌을 맞은 광주시립오페라단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새 수장을 맞은 시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한·중·일 연극인들의 축제 '베세토 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행사를 열었다. 빈 필·베를린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당 타이 손, 프리마돈나 조수미,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 등 클래식의 별들이 광주·전남을 찾았다.

◇'광주만의 콘텐츠' 악진=창단 첫돌을 넘긴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첫 번째 정기공연 무대를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로 꾸몄다. 시립오페라단은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윤성의 오페라 '망부운'을 50여 년 만에 부활시켜 오는 2019년 3월 광주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대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취임한 후 처음 선보인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는 3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러시아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참여한 이번 작품에는 시립발레단 역대 클래식 작품 중 최대 무용수와 150여 명의 제작진이 투입돼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창극단은 지난 5월 52회 정기공연 전통창극 '수궁가'를 선보였다. 화려한 볼거리와 해석적 요소가 두드러졌던 공연은 이를 연속 매진됐으며 2500여 관객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이 마련한 축제 '그라제'는 지난 10월10~21일 12일 동안 광주를 문화예술의 즐거움으로 채웠다.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갤러리, 잔디광장 등 곳곳에서 쉬 없이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연 이번 행사의 모든 공연 관람료는 1만원(학생 5000원)으로 부담이 덜했다.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김원중의 달거리'는 지난 2003년 출발한 이래 올해 8월 100회를 맞았다. 100번째 공연을 계기로 김원중은 184급 트럭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시베리아, 독일 베를린까지의 횡단길에 공연을 열겠다는 새로운 프로젝트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란'의 시동을 걸었다.

◇남도 찾은 클래식의 별들=올해 광주·전남지역에는 클래식 거장들의 발길이 잦았다. 지난 8월 말 열린 '2018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에는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60년 전통의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와 마에스트로 금남세, 첼리스트 송영훈 등이 무대에 올랐다. 같은 기간 열린 '제2회 여수음악제'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관가를 부른 소프라노 황수미와 KBS

교향악단이 협연했다.

클래식 팬들에게 친숙한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지난 9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21곡)을 연주한 4년 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광주 공연을 열었다.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쾨넨지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프랑스 에피넬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공연 등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개관 27주년을 기념해 '쇼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현존 연주자 당 타이 손을 지난 11월 초청했다. 광주일보가 창사 66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으로 WCN과 공동 주최한 '필하모닉스' 광주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명성을 그대로 이은 완벽한 연주를 만날 수 있었다.

◇언어와 몸짓의 무대로 소통=14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지난 10월 '넙다 허물다'를 주제로 일본·그리스·중국 등 16개 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역사적 주제의식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광주시립극단은 1년 5개월의 공백을 깨고 지난 9월 네 차례에 걸쳐 '명기열전' 공연을 펼쳤다.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된 이 작품은 지난 5월 취임한 나상만 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처음 극작과 연출을 맡았고 예산 1억2000만원이 들었다.

수도권에서만 열렸던 대규모 연극행사가 올해 처

음 광주에서 열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국·일본·중국 3개국 연극인들이 만드는 '2018 베세토 페스티벌'은 지난 10월 2주 동안 광주에서 첫 공연을 열었다. 축제 기간 동안 한·중·일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만의 7개 작품에 '베세토 키즈' 5개 공연을 더해 총 12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풍성한 가을 스크린축제=가을 극장가는 광주 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제 등 영화제가 잇따라 열리는 '광주영화페스티벌'로 풍성했다.

먼저 지난 10월 83번째 생일 맞은 광주극장은 고전 '잔 다르크의 수난'(1928), 장국영 주연 '아비정전'(1990) 등 16편을 상영하며 2주 동안 영화 축제를 벌였다.

바통을 이어 받은 9회 광주여성영화제는 11월14~18일 닷새 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평평등 세상을 외치는 42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광주극장에서 열린 '7회 스웨덴 영화제'는 스웨덴 출신 영화감독 임마르 베리만(1918~2007)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려 뜻 깊었다. 주한스웨덴 대사관 등이 주최한 영화제에서는 베리만의 대표작과 국내 미개봉작 '사라방드', 그의 생전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등 8편이 관객과 만났다.

페스티벌이 끝날 무렵에는 광주에서 찍은 허지는 이경호 감독의 '신기록'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통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내 영화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용·음악과 미디어아트의 황홀한 만남

'초월II' 공연...27일 한전 한빛홀

다양한 부분의 예술가들이 '미디어아트'로 만나 장르를 넘어선 무대를 펼친다.

용·복합예술 프로젝트 '씨클'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초월II' 공연을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남문화관광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1시간 10분 동안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용과 음악, 미디어아트가 만난 용·복합 무대가 진형된다. 광주 예술의 거리에 창작공간 '뉴폼스'를 마련한 씨클은 지난 2015년부터 '뉴폼'과 '패스', '초월' 등 공연을 선보였다.

먼저 조가영 안무가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재해석한 2인무 '별이 된 어린 왕자'로 문을 연다. 소설을 컨템포러리 발레와 화려한 미디어아트, 풀 발레 등으로 풀어낸다.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단원을 지낸 조성미씨가 어린왕자의 장미를 연상시키는 장대를 이용한 안무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성찰한다.

15분 동안 펼쳐지는 '별이 된 어린 왕자' 무대에



진시영 총감독 조가영 안무가

이어서는 홀로그램 영상과 안무를 접목한 '꿈 넘어 꿈'이 후반부를 꾸민다. 50분 동안 6명의 현대무용수는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저각몽'의 세계를 표현한다. 거울을 단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를 주는 '키네틱 아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5.1 채널 입체음향 시스템을 도입해 허동혁 작곡가가 참여한 음악을 생생한 실감 연주로 듣는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총감독을 맡고 조가영 씨클 대표가 안무를 맡았다. 전석 무료. 문의 062-223-065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동신대 연극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 무료 공연

27일 나주혁신도시

30일 광주 공동극장



▶주연을 맡은 배우 윤희철(왼쪽)씨와 한중근씨.

동신대학교가 광주시·나주시·구간 드라마스튜디오와 함께 만든 연극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를 연말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한다.

동신대 LINC+사업단의 민·관·학 상생 협력의 하나로 제작된 연극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 나주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극장, 30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공동예술극장 무대 위에 오른다.

한 때 잘나갔지만 시간이 지난 뒤 아무도 찾지 않는 코미디언들이 언젠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작품은 차두욱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장이 연출을 맡고 한중근, 윤희철, 박영국 등 지역 중견 배우들과 동신대 방송연예학과 재학생들이 출연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스퀘어 사진 공모 수상작 내년 3월까지 전시



유·스퀘어가 '제 12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유·스퀘어 2층 야외갤러리에 내년 3월까지 전시한다.

'화·로·애·락'을 주제로 꾸려진 수상작들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감정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희완씨의 '할머니의 웃음'(사진)은 파란 하늘 아래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할머니의 파안대소 모습을 자연스레 포착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2013년 야외갤러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픈한 후, 1년에 두 번씩 사진전을 열고 있다. 26점의 작품들은 공모가 끝난 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다음 사진 공모전이 열리는 2019년 4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